



보도일시	2018. 8. 17.(금) 조간(온라인 8. 16. 12:00)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18. 8. 16.(목) 09:00	담당부서	전과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
담당과장	김경우(02-2110-1990) 이황재(061-338-4600)	담당자	정건영 사무관(02-2110-1992) 임재우 연구사(061-338-4651)

세계 최초 5G 무선망 구축을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

-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완료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'과기정통부')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(5G)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,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.
- 금년 초부터 정부 및 이동통신사, 기지국·단말기·중계기 제조사, 시험기관, 학계,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.5GHz와 28GHz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.
-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,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(Rel. 15)에도 반영하였다.
- 우선, 대역폭 규정에 대해 3.5GHz 무선설비는 3420 - 3700MHz 범위 내에서 최소 10MHz폭에서 최대 100MHz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28GHz 무선설비는 26.5 - 29.5GHz범위 내에서 100MHz, 200MHz, 400MHz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.

- 또한,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,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(Total Radiated Power)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하였다.
-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“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·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, 향후 시험방법 등도 제정하는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-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rra.go.kr>) 법령 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정건영 사무관(☎ 02-2110-1992),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임재우 연구사(☎ 061-338-46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